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혜리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 of Perception, Attitude,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on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with Dementia

Hye Ree, Nam

Catholic Sangji Colleg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impact of perception, attitudes and anxiety toward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on the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Methods** : Participants were 13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October 15 to November 09, 2018.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affected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explained 43.6%($F = 10.19$, $p < .001$) of the variance in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Conclusion** :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to evaluate and improve the awarenes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to developed to foster a positive attitude the elderly with dementia.

Key words : Dementia, Perception, Attitude, Anxiety, Elderly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학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2.8%를 차지하고

[1]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여러 건강문제를 야기하며,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치매(25.4%)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와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14년 61만 명, 2020년 84만 명, 2050년 21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17년 현재 치매 유병률은 10.2%로 65세 이상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

자로 추정되며, 2050년까지 치매 유병률은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3].

치매는 기억력 저하, 정서변화, 인지기능 장애 및 기동력 저하가 발병 후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평균적으로 1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 점점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4]. 뿐만 아니라 치매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위해 타인에게 상당부문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질병이다[5]. Kim 등[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대가족문화가 사라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누가 노인을 보살필 것인지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치매 발병에 따른 부양 책임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4년 7월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방안으로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프라 확충 등 내실화를 다지고 있지만 [3], 여전히 치매는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장애로 도움과 보조를 필요로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문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치매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치매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돌보는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또한, 노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매 및 치매노인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8]. 치매에 관한 태도와 인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 치매노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9]. 치매환자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며, 간호사는 치매노인의 잔존기능과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여 개별적이고 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 및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10].

치매 노인에 대한 간호행위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는 이와 관련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간호사가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충분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유능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1]. 간호현장에서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사이므로 치매노인 간호서비스에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간호교육은 중요하다[12]. 간호학생들의 경우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사회구조변화현상에 따라 다양한 실습현장 및 임상상황에서 노인 및 치매환자를 간호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9], 치매의 증상은 대상자 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치매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2],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치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어 치매 노인 및 가족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간호 학생들에게 전문가적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적절한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14].

Kim[15]은 불안을 위험에 반응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기계(Adaptive Mechanism)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스트레스와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불안은 불안상태를 '조성'하는 외부자극조건인 스트레스와 달리, 특정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으로, 따라서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정적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치매에 대한 불안은 치매라는 외부조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개인이 지니게 되는 두려움 등의 주관적 감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치매발병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의 계속적 전달과 정보제공은

로 치매발병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16].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불안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의 전문지식과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의 태도를 조사하고,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간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강원도에 있는 K대학교와 S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여 설문에 응답한 전체 대상자수는 160명이었고, 최종적으로 응답내용이 부족한 설문지 6부

를 제외한 134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G-Power 3.1.9.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3, 검정력 0.8로 산출하였을 때 총 128명으로 분석대상자수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09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대상 간호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간호학생에 한해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고, 간호학생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구동의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 설문지 작성 중간에 언제든지 참여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 연구 참여 중지와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 설문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3. 연구 도구

1) 치매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에 대한 인식 도구는 Cho 등[17]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치매의 원인에 대한 항목 5개, 의학 및 제도에 대한 항목 3개, 증상 및 진단에 대한 항목 4개,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항목 3개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등[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2) 치매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치매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Lee[18]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총 15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각 문항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Lee[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4$, 본 연구 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3) 치매 불안

치매불안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Park[19]의 선행연구에서 ‘나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대한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4)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개인이 노인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anders 등[20]의 의미 분별 척도를 Lim[21]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되는 형용사가 쌍으로 구성된 각 문항에 대해 Likert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응답된 항목에 대한 결과는 점수가 낮을수록 (최저 1점)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최고 7점) 치매노인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본 도구는 7점 척도이므로, 각 문항 당 점수가

3.5~4.5의 범위가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범위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도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참여 가능한 해당학교의 관계자 및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도에 거부 및 중단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과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기술통계를 적용하였고,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13(84.3)	
	Male	21(15.7)	
Age(years)	≤25	116(86.6)	23.94±3.85
	26~30	11(8.2)	
	31~35	3(2.2)	
	≥35	4(3.0)	
Religion	Yes	55(41.0)	
	No	79(59.0)	
Marital status	Single	127(94.8)	
	Married	7(5.2)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	Yes	80(59.7)	
	No	54(40.3)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dementia elderly	Yes	20(14.9)	
	No	114(85.1)	
Experience of volunteer service related dementia elderly	Yes	46(34.3)	
	No	88(65.7)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간호 학생들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영향 요인의 확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 113명(84.3%), 남자 21명(15.7%)으로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다. 연령은 25세 이하가 116명(8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6세 이상 30세 이하 11명(8.2%), 36세 이상 4명(3.0%), 31세 이상 35세 이하 3명(2.2%)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3.94 ± 3.848 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55명(41.0%)이 가지고 있었고, 79명(59.0%)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 127명(94.8%), 기혼 7명(5.2%)였다. 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80명(59.7%)였고, 노인과 동거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54명(40.3%)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의 114명(85.1%)은 치매 노인과 동거 경험이 없었으며, 20명(14.9%)은 치매노인과 동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치매와 관련된 자원봉사의 경험은 46명(34.3%)이 있다고 응답했고, 88명(65.7%)은 없다고 응답했다(Table 1).

2.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과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의 태도의 평균점수는 Table 2와 같다. 치매에 대한 인식은 평균 10.88 ± 2.53 점, 치매에 대한 태도 55.42 ± 5.08 점, 치매에 대한 불안 3.54 ± 0.92 점,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3.21 ± 0.64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의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중립적으로 표현한 6문항을 제외하고, 14문항 모두 부정

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의존적인”(2.30점), “비생산적인”(2.48점), “신뢰할 수 없는”(2.53점), “아픈”(2.62점), “인내심이 없는”(2.62점), “단정치 못한”(2.63점), “융통성이 없는”(2.99점), “불평이 많은”(2.99점), “매력적이지 못한”(3.18점), “어리석은”(3.22점), “보수적인”(3.28점), “나쁜”(3.4점), “이기적인”(3.44점), “슬픈”(3.49점)순이었다(Table 3).

Table 2. Perception and Attitude, Anxiety toward Dementia,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Variables	Range	Mean \pm SD
Perception toward dementia	0~16	10.88 ± 2.53
Attitude toward dementia	1~60	55.42 ± 5.08
Anxiety toward dementia	0~5	3.54 ± 0.92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0~7	3.21 ± 0.64

Table 3.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among Nurse students

Item	Mean \pm SD	Attitude
Foolish – Wise	3.22 ± 1.08	Negative
Unkind – Kind	3.78 ± 1.15	Neutral
Ignorant – Knowledgeable	3.57 ± 1.11	Neutral
Sad – Happy	3.49 ± 1.53	Negative
Untrustworthy – Trustworthy	2.53 ± 1.19	Negative
Selfish – Generous	3.44 ± 1.31	Negative
Inactive – Active	4.16 ± 1.51	Neutral
Untidy – Neat	2.63 ± 1.08	Negative
Unfriendly – Friendly	3.52 ± 1.26	Neutral
Boring – Interesting	4.06 ± 1.35	Neutral
Unproductive – Productive	2.48 ± 1.08	Negative
Sick – Health	2.62 ± 1.28	Negative
Bad – Good	3.40 ± 1.28	Negative
Inflexible – Flexible	2.99 ± 1.22	Negative
Dependent – Independent	2.30 ± 1.35	Negative
Conservative – Liberal	3.28 ± 1.09	Negative
Unattractive – Attractive	3.18 ± 1.19	Negative
Intolerant – Tolerant	2.62 ± 1.19	Negative
Pessimistic – Optimistic	3.93 ± 1.52	Neutral
Complaining – Uncomplaining	2.99 ± 1.15	Negative
Total	3.21 ± 0.64	Negative

Table 4. Correlations of Perception and Attitude, Anxiety toward Dementia,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Variables	Perception toward dementia $r(p)$	Attitude toward dementia $r(p)$	Anxiety toward dementia $r(p)$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r(p)$
Attitude toward dementia	.22 (.011)			
Anxiety toward dementia	.14 (.113)	.29 ($<.001$)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38 ($<.001$)	.10 (.264)	-.06 (.472)	.10 (.264)

3.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

치매에 대한 인식은 치매태도($r=.22, p=.011$)와 순상관계가 있었고,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r=-.38, p<.001$)와는 역상관계가 나타났다. 치매태도와 치매불안($r=.29, p<.001$)은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이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beta=-.43, p<.001$), 치매태도($\beta=.21, p=.014$)의 변수가 치매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43.6% 설명해주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R^2=0.436, p<.001$).

Table 5. Predictors of Variance in Attitude of Elderly With Dementia

Variables	β	t	p
Perception toward dementia	-.43	-5.25	$<.001$
Attitude toward dementia	.21	2.50	.014
Anxiety toward dementia	-.07	-0.80	.423
Adj. $R^2=0.436, F=10.19,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호학생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간호학생의 전문지식과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점수는 15점 만점에 10.88 ± 2.53 점으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Jo[13]의 9.77 ± 2.55 점보다 높았고,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Oh[22]의 10.22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 입소시설의 케어 워커를 대상으로 연구한 Jang[8]의 연구결과 한국 노인 입소 시설의 케어워커의 치매에 대한 인식 11.76 ± 2.57 점, 일본 노인 입소 시설의 케어워커의 치매에 대한 인식 11.80 ± 2.61 점 보다 낮은 치매에 대한 인식도를 나타내어 향후 치매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55.42 ± 5.08 점으로 Jo[13]의 39.76 ± 4.00 점, Kwon[23]의 45.15 ± 4.59 점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불안정도는 3.54 ± 0.92 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가중되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하여 Park[19]은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만의 대상이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처 행동으로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3.21 ± 0.64 점으로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75 ± 0.56 [24]보다 치매노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9]의 연구에서 치매노인과 일반노인의 이미지를 비교한 결과 치매노인이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Lee 등[24]의 연구에서 일반노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아픈”(2.85점), “보수적인”(2.98점), “비생산적인”(3.11점), “비활동적인”(3.16점), “의존적인”(3.33점), “불평이 많은”(3.46점)순으로 나타났다. 일반노인에 비해 치매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는 노인이 받는 부정적 인식에 치매라는 질병특성으로 인해 받게 되는 부정적 인식이 가중되는 것[9]이며, 치매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중립에서 부정적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인”(2.30점)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비생산적인”(2.48점), “실패할 수 없는”(2.53점), “아픈”(2.62점), “인내심이 없는”(2.62점), “단정치 못한”(2.63점), “융통성이 없는”(2.99점), “불평이 많은”(2.99점), “매력적이지 못한”(3.18점), “어리석은”(3.22점), “보수적인”(3.28점), “나쁜”(3.4점), “이기적인”(3.44점), “슬픈”(3.49점)순으로 나타났다. Kim[9]은 학생들이 치매노인들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하기 이전에 대중매체에서의 치매에 대한 증상을 극화시켜 보여주는 것에 노출된 영향이라고 설명하였고,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치매노인의 모습은 지속적인 기능감퇴를 경험하는 질병 특성상 부정적 특면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일 수 있다[25]고 하였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며 행위의 근거가 되며, 치매노인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질병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치매노인의 언어나 행동을 인정하여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태도가 필요하다[26]고 하였다.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치매에 대한 인식과 치

매태도($r=.22, p=.011$) 및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r=-.38, p<.011$)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22]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태도와 치매불안($r=.29, p<.011$)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불안감을 줄임으로써, 치매관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호학생들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beta=-.43, p<.001$), 치매태도($\beta=.21, p=.014$)가 확인되었다.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적극적인 국가 정책 개입이나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와 같은 구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주목을 일으키고 있으나, 여전히 치매를 문제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정신 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치매노인과 그 증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해있다[27].

치로나 돌봄 및 신체적 정신적인 의존이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치매질환에 노출된 노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노인의 삶의 질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이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요인이 간호학생의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치매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매노인 간호행위 실천을 향상시키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매와 관련된 인식개선 활동경험 및 교육과정을 통해서 치

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치매에 대한 인식, 태도, 불안, 치매 노인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매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이 태도를 갖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tatistics.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Seoul : Kostat. 2015.
2.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n korea: Statistical Data of Health Insurance in Korea(2010~2013); 2017.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ernet].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The status of dementia; 2017 [cited 2017 June 10].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aspx.
4. Park JH, Kim NS. Memory functions in questionable dementia of the alzheimer typ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98;37:134-140.
5. Kim TH, Han EJ.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home after placement of a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7;27(3):579-596.
6. Kim MK, Kim DJ. A study on policy for dementia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2011; 3(1):33-43.
7. Courtney M, Tong S, Walsh A.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000;6:62-69.
8. Jang YJ.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the care workers who work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4;34(2):333-348.
9. Kim JH.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07;18(4):601-610.
10. Hendrix CC., Wojciechowski CW. Chronic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an opportunity for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2005; 17(7):263-267.
11. Choi JY, Lee YJ. Research on nurses' stress for elderly care and stress-coping strateg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2;10(8):275-86.
12. Kang HY, Chae MJ, Seo HS, Yang KM.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1):69-77.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69>
13. Jo SH, Kim EH. A convergenc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7):317-323. <http://dx.doi.org/10.15207/JKCS.2018.9.7.317>.
14. Kosberg JI. The importance of attitud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health care providers of geriatric populations. Social Gerontology : Karger Publishers; 1983. p.132-143.
15. Kim HY.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and safety of retirement planner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1996. p.1-98.
16. Song YH.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dementia : for the middle aged. [master's thesis]. Seoul: Dongduk University; 2002. p.1-76.
17. Cho MJ, Kim KW, Kim YH, Kim MD, Kim BJ, Kim SK, et al.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Seoul: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8. p.146-157.
18. Lee YW. Annual report for namgu dementia caring center. Incheon: Namgu Dementia Caring Center, 2016.
 19. Park YI. Level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fear to be ill with dementia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master's thesis]. Gyeongsangnam-do: Inje University; 2002. p.1-39.
 20. Sanders GF, Montgomery JE, Pittman JF, Balkwell C.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84;3(1):59-70.
 21. Lim YS, Kim JS, Kim KS.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2;22(1):31-46.
 22. Oh BY,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influenced factors on dementia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2016;5(1):111-127.
 23. Kwon MS, Lee JH.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9):177-185. <https://doi.org/10.5762/KAIS.2017.18.9.177>
 24. Lee JY, Nam ES, Son EJ, Hwang JH, Nam HR. Influence of nurses's stress related to geriatric nursing on nursing practice for older patients in hospital.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2016;18(2): 53-61. <http://dx.doi.org/10.17079/jkgn.2016.18.2.53>
 25. Kim JH. Effect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on attitudes toward elders with dementia and general elder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6;36(4):645-651.
 26. Kim CG Lee YH.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with demented oder person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012;24(5):454-465.